

어린이 불교문화교실 '붓물'

여름방학

전통문화·불교공부로 심성교화

오는 16일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계의 각 사찰과 복지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문화교실을 기획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계의 각 단체들이 이와같이 매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찰에서 진행되는 불교문화교실은 부처님의 법음이 오롯이 살아숨쉬는 도량에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습득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어 포교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 부부나 포교원(원장 선일)은 오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불교문화교실을 개설한다. 이번 불교문화교실은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불교적 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부부나포교원의 여름불교문화교실은 먼저 즐겁고 신나는 여름방학을 위해 구기운동하며 함께 놀기, 요리실습, 단소배우기가 진행되며 참선, 미술, 불

교이야기, 서예, 다도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부부나포교원 불교문화교실의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기간중 야외학습과 수영, 수련대회도 개최된다.

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은 우리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교실을 연다.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불교문화교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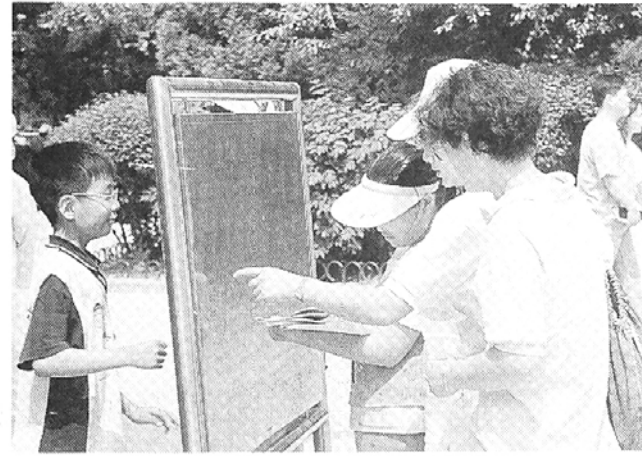
부부나포교원 참선·미술·서예·다도등 프로다채

법동 복지관 엄마와 함께 만드는 생활도에 '눈길'

길음 복지관 '통큰어린이 캠프'로 적극성 훈련

오는 23일부터 1박2일간 펼쳐지는 '여름캠프'를 비롯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열리는 '엄마와 함께 만드는 생활도'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영어교실' 등 3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유아기때부터 우리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되는 '엄마와 함께하



◇ 유명교사이나 유서깊은 문화유적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현장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는 생활도'는 8세~9세이하의 어린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도 유익한 방학을 위한 여름방학문화교실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2일까지 펼쳐지는 '통큰 어린이 캠프'는 팻목타기, 정글탐험 등의 적극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황극,

역할극등의 자기표현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유적지와 박물관, 과학관을 직접 답사하는 현장학습위주로 진행되는 특강프로그램은 복지관측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는 프로그램. 18일 우정박물관, 남산식물원, 자연탐구학습관 24일 국립서울과학관, 8월7일 농업박물관과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 14일 전쟁기념관 견학.

이밖에도 인형극교실, 과학교실, 김용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교실이 방학기간내에 이어진다.

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심성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문화교실은 전국의 각 사찰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 지도자들은 "교계에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신심증진을 위해 마련되는 문화교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사찰과 단체에서 이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가장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어린이 포교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종근 기자

새싹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봉사의 기쁨 체험하세요”

방학이용 청소년 자원봉사 '활기'

서울 덕산중 1년 박민혜양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찾았다. 학교친구 30여명과 함께 제대로 읽을 수 없을 만큼 더러워진 독립선언 비문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여동안 밤우들과 함께 팔출러 청소한 뒤 걸리셔도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난 비문을 보고 봉사의 기쁨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원으로 자원봉사에 나선 박양처럼 최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 봉사자들의 봉사 활동이 점점 다양해지고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교계에서는 일부 청소년단체가 산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으나 올해에는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님) 산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각 사찰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자선·위

거리청소·노인방문등 필요할곳 어디든지 중생부 점수가산등 교육정책도 한몫

문·구호·환경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종합생활기록부에 점수로 기록되는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처럼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주위에는 중고생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자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나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각 종단과 사찰에서 8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근>

* 악의 장 *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

이 향 원

만 화

법구경

법 구 경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 교과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당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I	
3학년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1.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2.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3.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